

문화광장



양 건 건축학박사·제주 공공건축가

성찰의 도시, 대정성의 옛길을 걷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수칙은 걷기 열풍을 더욱 가속화한다. 이미 '제주 올레'를 통해 제주 사회에 전파된 트레킹의 여가문화는 이제 '걷는다는 것'의 철학적 의미까지 더해 자신의 존재를 찾는 성찰의 수단 이 된 듯하다. 그래서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길'의 이름을 붙인 각양 각색의 길이 즐비하고 오히려 길 공해의 수준이다. 더구나 막상 그러한 길을 걸어보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누군가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길이 개척되고 만들어져 있지만, 지속가능한 관리체

계는 허물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급성으로 비춰볼 때, 2017년 '제주 특별자치도 옛길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했다. 제정 당시 관리운영주체의 위탁 문제로 잡음이 있기도 했으나 옛길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로서 유의미하다. 최근, 옛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진과 조선시대 삼현 중 하나인 대정성을 답사할 기회가 있었다. 일행은 1914년도에 제작된 지적원도에 의지해 동문 입구 추사 적거지에서 서문까지의 옛길을 조사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원형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놀라웠다.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객사터와 관청의 자리가 여전하고, 옛길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기와의 파편 소리는 우리를 200여 년 전으로 안내한다. 그런데 이 자리가 기와를 굽는 가마터였다는 자원봉사자의 황당한 설명에 상상의 끈이 끊겨버린다. 대정성

의 발굴조사가 조속히 시행돼 제대로 된 대정성의 공간 구조가 밝혀져야, 향토사학자의 스토리텔링이 정사가 되는 일이 없겠다는 노파심이 있다. 조선시대 성 안 도로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T자형인데 동서도로의 하부 서측은 현재 보성초등학교 자리이고, 동측은 민가들이 모여 있다. 성 안 주민의 생명수인 우물터와 자연스레 연결되는 옛길에서 선인들의 일상을 그려본다. 더불어 보성초등학교와 성 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거 대정성의 유적들에서 결국 허물어져버리는 도시와 건축의 유한함을 상기하게 된다. 또한 대정성에 오면 슬픈 사연으로 추사관을 돌아본다.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를 기념할 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던 차에, 1984년 제주문화예술계는 추사 적거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예총 지회장이던 고 양창보 화백(1937~2007)은 전국의 예술가들

에게 그림기부를 받아 건립기금을 조성한다. 제주 사람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추진된 추사 적거지는 그 이후 제주민의 마음과 정신이 추사 김정희와 연결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10여 년 전, 문화재청은 추사 적거지에서 제주민의 흔적을 허물고 중앙의 관점으로 그 위에 지금의 추사관을 세우고 만다. 이제는 연봉 홍중시 선생과 청탄 김광추 선생의 글씨가 새겨진 추사 기념비만이 유일하게 적거지 뒷마당에서 제주민의 정신을 기억하고 있다. 옛길을 걷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옛길에는 자연풍광과 더불어 역사적 서사가 쌓여있어, 길을 걷는 개인마다 자신만의 시공차원 안에서 발바닥의 촉각으로 전해오는 성찰의 체험을 얻는 것이다. 반나절의 짧은 대정성 옛길의 걷기로도 실존적 주제로서의 자신을 발견 하게 되듯이...

열린마당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김 한 영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법칙기에 서명해 즉시 문서들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인감증명에 비해 편의성과 안전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번만 이용 승인을 받으면 정부24에서 언제든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낯선 이름이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혀 불편한 게 아니다. 인감도장은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돼 있는 추세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인감도장의 위·변조 및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인감도장 분실이나 변경에 따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길 기대해본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기관을 방문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 뿐만이 아닌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2년 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오랜 관행 등으로 인해 매매, 교환 등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단점 등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정착이 쉽지 않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연구원장 재공고 결과 주목

오는 10~20일 재공고 접수 태와 학생 선수 인권 등을 점검하라"면서 "경쟁과 서열, 성적 중심의 엘리트 체육 교육 문화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시. 이 교육감은 이어 "아이들이 평생 스포츠를 즐기도록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전환 및 정착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 송은병기자 '행복농촌만들기' 본선 진출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와 안덕면 덕수리가 지난 24일 열린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예선에서 분야별 최우수로 선정되며 본선 진출권을 획득. 신풍리는 '테마마을 운영을 통한 제주 전통혼례, 민박·감물체험 등 다양한 상시 체험'을, 덕수리는 '불미공예, 방앗돌 굴리는 노래의 이야기를 반영한 마을 문화경관 조성'을 주제로 8월 27일 대전에서 진행되는 본선에 도전. 시 관계자는 "마을 주민간 단합과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현영종기자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학교 체육부 실태 점검을 약속. 이 교육감은 6일 주간기획조정 회의에서 "학교 체육부 운영 실

태와 학생 선수 인권 등을 점검하라"면서 "경쟁과 서열, 성적 중심의 엘리트 체육 교육 문화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시. 이 교육감은 이어 "아이들이 평생 스포츠를 즐기도록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전환 및 정착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 송은병기자 '행복농촌만들기' 본선 진출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와 안덕면 덕수리가 지난 24일 열린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예선에서 분야별 최우수로 선정되며 본선 진출권을 획득. 신풍리는 '테마마을 운영을 통한 제주 전통혼례, 민박·감물체험 등 다양한 상시 체험'을, 덕수리는 '불미공예, 방앗돌 굴리는 노래의 이야기를 반영한 마을 문화경관 조성'을 주제로 8월 27일 대전에서 진행되는 본선에 도전. 시 관계자는 "마을 주민간 단합과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현영종기자

사설

지역경제 악화일로, 맞춤형 대책 절실

요즘은 경제지표를 들여다보기가 겁날 지경입니다. 경제 부문에서 뭐하나 반가운 소식을 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들어닥친 코로나19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갈수록 얼어붙으면서 좀처럼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주지역의 경기종합지수도 3개월째 하락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집계한 '경기종합지수'에 따르면 지난 4월 선행종합지수(2015=100)는 111.5로 앞선 3월 113.8(-1.4)과 2월 115.4(-0.1)에 비해 낮습니다. 1월 115.5(0.9)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로 지역경기가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종합지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기동향이나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용한 지표입니다. 제주지역 동행종합지수(2015=100)도 선행종합지수와 같이 3개

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행종합지수에서도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월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관광·서비스업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비제조업 현황)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깁니다. 현재 제주경제는 지표에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주경제가 전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 감소로 비롯 건설투자 부진, 소비 감소 등 지역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보고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보다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험수위로 치달는 지역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제한 면회' 철저한 점검·관리를

제주시 관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족면회가 이달부터 제한적 비접촉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위험시설로 분류돼 면회를 제한한 지 4개월여만에 재개된 겁니다. 제주시는 7월부터 관내 노인요양시설 2개소 79명, 노인요양시설 45개소 2266명의 입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면회를 비접촉 방식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면회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지난 2월 24일부터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고령자들이면 회를 감안해 집단감염 예방차원에서 제한돼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인 입소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낙담 넘게 외부와 단절되는 상황을 맞으면서 우울감을 호소하고, 가족들은 부모 안부 때문에 민원을 잇따라 제기해 온데 따른 것입니다. 제주시는 다

절제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제한적 비접촉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면서 비접촉방식의 요양시설 면회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은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옮기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는 여전히 난제입니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 입국 외국인 1명이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던 가 하면 관광 최성수기인 여름 휴가를 앞둔데다 관광객 해외수요도 제주로 집중될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는 여전히 상존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면회 허용이 입소자·가족의 숙원을 풀고, 코로나19 확산에 비상인 행정의 우려도 말끔히 해소되도록 완벽한 방역수칙 준수와 철저한 점검·관리를 감안, 면회를 허락하되 사전예약과

부 고

부상돈(전북대 교수) 부친, 권 범 (변호사) 장인이신 제주부공 경찰 (향년 81세)께서 2020년 7월 4일 13시 57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0년 7월 7일(화요일)
▶ 발인일시: 2020년 7월 8일(수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실
▶ 장 지: 선흘리 1462-3 선영

부인 현덕자

아들 부상돈 며느리 김순희

딸 부애진

부애정 사위 권범

*연락처: 부상돈 010-7139-4264 권범 010-4751-7488

부 고

조여진(前 제주도청 환경도시국장) 아버지 한양조공 창옥(국가유공자·향년 98세)께서 서기 2020년 7월 6일 03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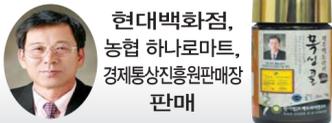
- ▶ 일 포: 2020년 7월 7일(화요일)
▶ 발인일시: 2020년 7월 8일(수요일) 오전 6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 장 지: 양지공원

아들 조여진 며느리 장신숙
조범진 전춘애
(제) 조용진 최옥자
조환진 한지숙
딸 조순녀 사위 홍방부
조미경 이윤수
조정기 성호준
조연일 이동희
조선희 양승철
장손 조철우

*연락처
조여진 010-4570-2358 성호준 010-3698-5355
조범진 010-3692-2966 이동희 010-9363-3114
조환진 010-9204-1691 양승철 010-7139-018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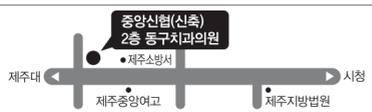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